

광주 농촌 13개 학교 완전무상교육

시의회 조례 통과... 소규모 학교 수학여행비·앨범대도 지원

이르면 2학기부터 가능

광주시의회는 13일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광주 농촌 있는 13개 초·중학교와 산하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와 상호 협조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1년 5억원)이 확보됐으며, 시 교육청이 지원 입장을 정하면 2학기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인화 의원

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수익자 부담이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시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의 50%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호 의원은 “한미 FTA 등으로 피해를 겪어 가는 농촌지역을 살리는 첫 걸음은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며 “광

주 농촌소규모학교는 교과부가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전월학교에도 해당하지 못하고 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에도 외면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농촌소규모학교는 동초, 지산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분량초와 광주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15명 직원 파견 여수박물관 정원 조성승인

전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15명의 직원을 파견키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3급 1명과 4명 2명 등 모두 15명의 직원을 파견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예초 3급 1명과 4급 4명 등 모두 16명에 대한 정원 조정안의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파견 인력이 확정되면서 승진 요인이 생기면서 조만간 대규모 인사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는 10월 열리는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에 맞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심생태습지가 조성될 예정인 용봉저수지와 인근 전경. 4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수변생태원과 비오름 등 철새와 곤충 등이 서식하는 생태습지로 조성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비엔날레 지구에 도심생태습지 만든다

47억 들여...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맞춰 부분 개방

광주시에 오는 10월11일 개막하는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이하 UEA 광주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최초로 북구 중앙공원 내 비엔날레 지구에 도심생태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3일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새나 곤충 등이 서식하는 비엔날레 지구 용봉저수지를 생태습지로 조성, 문화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꾸며 UEA 광주정상회의에 맞춰 부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용봉저수지와 인근 4만2040㎡를 동식물 서식처, 생태학습공간, 경자지 비오름 등을 배치하고 주변 녹지와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시켜 UEA 광주정상회의의 대표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마무리는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회의 기간에는 수변생태원 및 경자지 비오름 등만 개방

해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도시 정상 및 대표단들에게 선을 보이겠다”며 “비엔날레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대표 관광 코스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EA 광주정상회의의 분회회는 광주시, UNEP(유엔환경계획), 샌프란시스코시 공동 주최로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국내외의 100여 개 도시 정상 및 대표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Green City, Better City’를 주제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22일 처리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13일 오후 모임을 갖고 임시회가 예정된 오는 8월29일 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 하반기 인사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지원관과 기업유치지원관, 국제협력관을 하나로 합쳐 투자고용국(3급)을 신설하고, 시민교통국과 건설발전재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통합하는 한편 경제산업정책실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윤봉근 “U대회수영장 광주 발전 초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수영장 입지 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이익과 광주시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U대회 수영장 입지선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시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광주 현실에서 소지역주의와 감정에 얽매인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광주발전이 저해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강운대 시장은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이미 결정된 광산구 수완수영장 부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편에서는 수완동 부지는 이미 지난 2009년 박광대 시장 재임 때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 치우치지 말고 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건축이 합의됐었는데 사업인가 결과, 390가구만 짓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문상필 “운정동매립장 복토 방지”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13일 “복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된 7년이 지나지만 복토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조속한 복토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마련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2004년 말에 매립이 완료됐지만 복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의 불만이 크다”며 “복토 후 3년여의 안정화를 거친 후에도 매립장 부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U대회 선수촌 소형 놀이”

광주시의회 강은미(민주노동당) 의원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쓰일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13일 “높은 분양가 때문에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도심재생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형 평수 가구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이 재입주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19평형에 사는 사람이 25평으로 입주했을 때 1억여원, 11평형에 사는 사람이 25평형으로 재입주하려면 1억3천여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조합원 재입주 여부 설문조사 결과, 711가구가 25평형대를 신청했고, 지난 4월30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25평형을 522가구로 짓는 조건으로



진선기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확대”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1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인제육성재단을 통한 학자금 이차 지원율이 3%에 달하고 충북은 3.4%, 경남은 3%를 지원하는 반면 광주는 1%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자 지원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대학 수송인원은 810명으로 올해 입학 경쟁률이 3.4 대 1에 달할 정도”라며 “광주 고교 출신 서울 대학생들이 집세, 생활비 문제 등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남도대학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통문화재 2천억원 지원 추진

관광인프라 확충... 불교계 표심잡기 지적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통문화재의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상품화 등을 위해 2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재 종합지원 대책으로 주로 사찰이 혜택을 보게 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문

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내일 당정협의의 거쳐 이런 내용의 전통문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전통문화재 관광인프라 확충 ▲문화재 시설 증개축 ▲긴급개보수 및 발굴사업 ▲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에 2천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예산도 2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일랜드 국가신용 ‘정크등급’으로 강등


무디스, Baa3-Ba1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Baa3에서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강등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전망도 ‘부정적’을 유지,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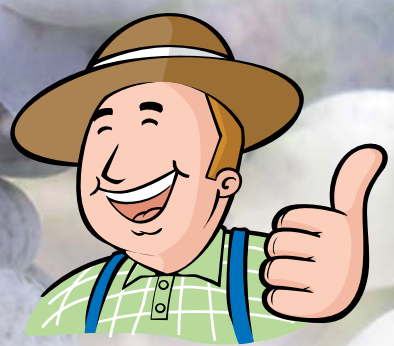
이로써 불과 2년 전만 해도 Aaa등급을 유지했던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재정위기로 인해 투자 등급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가나안 블루베리 농장특별분양!!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10대 건강식품” 블루베리농장주를 모십니다.




모목 분양(기술 이전)

1.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품종 다수
2. 기술이전 및 꾸준한 판매관리

가족의 건강 내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블루베리로

- 병충해에 강하고 50년 이상 자생으로 누구나 작목 가능
- 가족과 주말농장으로 친환경 블루베리 수확가능
- 소액투자로 생과판매 수익 및 토지 수익 효과(혁신도시와 5분거리) Ex) 모목 34구루 작목 - 1구루당 약 3kg~6kg 수확가능 생과 1kg 판매가격 약5만원 (2011년 현지 평균 판매가격) 1년 생과 판매수입 약 680만원정도...



혁신도시와 5분거리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공공기관 15개 이전 확정

농업 법인 회사 (유)가나안

최적의 입지 조건과 생산환경으로 최고의 블루베리 농장으로 조성

성공적인 작목기술 보유로 최고 품질

혁신도시 인근으로 향후 지가 상승효과 및 꾸준한 수익으로 노후대책 가능

도트락100%원액판매

제품명: 도트락 블루베리 원액로명 및 함량: 블루베리원액 100% (블루베리 농축액 18brix) 제조원: 도트락(주)

• 18브릭스(brix)란? 일제 철가물 없이 블루베리 생과를 1,000cc를 갈았을때, 800cc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원액을 말함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근접해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가 상승기대 및 생과 가격 수입 보장

대리점 및 가맹점 모집 문의 / 함께할 직원을 찾습니다

1661-0880 / 062-716-7000

010-9299-5679